



## 다윗과 요압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7년 12월

이스라엘 군대의 메시아닉 군인들을 위해 기도에 주시기를 호소하며...

이스라엘 군대는 성경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의 예언에 있어서도 그 역할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군엔 200여명의 메시아닉 유대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예슈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연결되는 구절들을 생각해봅시다.

**여호수아 5 장**에서 우리는 예슈아(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나시기 전 여호와와 군대장관으로 오신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 분의 군대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6 장**에서, 엘리사는 종의 눈이 열리기를 구합니다. 그는 주님의 천군(天軍)을 보게 되지만, 군대 장관은 범지 못했죠.

**요한 계시록 19 장**에 보면, 하늘의 군대와 군대 장관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지만, 땅의 전투는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가랴 14 장**에는 지상에서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을 놓고 싸우시는 모습이 나오지만, 하늘의 군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아 5 장**에서는 천사들로 이뤄진 하늘의 군대와 지상의 이스라엘 군대가 압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때의 예언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지구 상의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는 거대한 전쟁의 최고조에서 깨림하시는 예슈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전쟁에는 지상의 측면과 천상의 측면이 있습니다. 예슈아의 하늘 군대는 이 땅의 이스라엘 군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고리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군의 유대인 병사들(특히 간부들) 중 예슈아를 믿는 이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18세가 되면 대부분 입대를 합니다.

지난 1-20년간,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정직과 애국심, 그리고 성실함으로 군대에서 좋은 평판을 쌓아왔습니다. 군대는 종교가 아니라 병사들의 수행 능력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평가 받을 만한 공개적인 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인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로 말입니다.

반면, 군대엔 ‘영적’ 인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전투 자체의 본질 탓에 군대는 사랑과 민감함이 아닌, 능력과 임이라는 하위 문화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거듭난 메시아닉 군사들은 어려운 입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자비와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도록 부르심 받았는데, 다른 이들은 때로 육욕적이고 이웃을 돌보지 않으며, 잔인하기까지 아니까요.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윗과 요압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다윗은 “요압과 그 무리들이 제게 너무 모질게 굽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삼아 3). 저는 불연듯 왜 이러한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군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성도’ 의 예표입니다. 요압은 ‘영적이지 못한’ 병사를 나타내고요.

요압과 그 부류의 군사들은, 비록 옳은 영의 인도를 받은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인도하여 주께 많은 승리를 올려 드렸고, 심지어 예루살렘 정복도 그의 공이었습니(대상 11). 한편 요압은 무고한 사령관 둘을 죽였고, 마침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반역하는 데에 일조했습니다(왕상 1).

제가 믿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 군대의 메시아닉 성도들은, 다윗과 여오수아 같은 성경의 영웅들과 마찬가지로, 예슈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 하나님의 인도가 이스라엘 군과 양상 함께하여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에 기록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2. 믿는 군사들 개개인의 인격으로 증명되어 메시아 예슈아의 복음이 군인들 가운데 편만하도록
3. 메시아닉 군사들이 기도와 성경 공부,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4. 가장 높은 계급에서 연역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섬기고 있는 메시아닉 장교 예지를 위하여

이번 아누카 주간에 저의 사역에 열매를 여락하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1. 크파르 사바에 위치한 마야안 공동체에서 200 명의 메시아닉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전국에서 모여 아누카를 기념했습니다. 리란 S 가 찬양을 인도했고, 엘리 B 는 외역을 주도했으며 다니엘 G 는 아누카 의식을 인도했습니다. 프레디가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모두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성령으로 연합하게 아심을 감사 드립니다.
2. 전국 규모의 청소년 수련회 ‘카피르(주수)’ 가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열려, 180 명의 청소년과 상담가들의 참여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다비드와 엘리가 찬양을 인도했고, 대니와 마이크, 에탄과 아셰르가 말씀을 전했다. 에탄이 지도한 간사진은 청소년 사역을 놀랍게 감당해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청소년들의 모임이 성장하며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3. 마이크가 이끄는 “이사야 19 장의 비전” 사절단이 터키인, 아르메니아인, 쿠르드인,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 안전하고 성공적인 복음 전도와 ‘다리 놓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터키의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의 연합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의가 감당하고 있는 연지 복음 전도, 이브리어로 이어가는 예언적 찬양과 기도, 제자 훈련과 영적 무장, 메시아닉 공동체 개척, 그리고 이스라엘 성도들 대상의 전략적이고 강력한 구제 사역에 기도와 헌금으로 계속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번역: 고흥연